

106

새로운 조경수 (산옥매나무)

벚나무속 II

(Prunus II)



김사일
(전 임업연구원 산림환경부장)

● 종류와 생육특성

산옥매나무는 장미과(Rosoideae) 앵도나무아과 (Prunoideae) 벚나무속(Prunus)에 속하며, 산옥매나무

중에 흰색 홑꽃이 피는 것을 흰산옥매나무, 흰색겹꽃이 피는 것을 옥매나무, 분홍색겹꽃이 피는 것을 홍매나무라고 하며 산옥매나무의 유사종으로는 앵도나무와 이스라지가 있다. 산옥매나무와 앵도나무는 중국이 원산지이고, 이스라지는 우리나라가 원산지다. 이들 나무의 생육특성은 내한력(耐寒力), 내공해력(耐公害力), 내습력(耐濕力)이 강하고 내건력(耐乾力), 내음력(耐陰力)이 약한 편이어서 햇볕이 잘 드는 양지로서 토양습도가 적당하고 비료분이 풍부한 사질양토에서 잘 자란다.

〈표1〉 산옥매나무의 종류와 유사종

국명	학명	일본명	영명
산옥매나무	<i>Prunus glandulosa</i> THUNB.	ヒトエノニワザクラ	Flowering Almond
흰산옥매나무	<i>Prunus glandulosa</i> THUNB. var. <i>alba</i> (KOEHNE) REHD.	ヒトエノシロバナ 니와ザクラ	
옥매나무	<i>Prunus glandulosa</i> THUNB. for. <i>albiplena</i> KOEHNE.	야에노시로바 니와ザクラ	Chinese Bush Cherry
홍매나무	<i>Prunus glandulosa</i> THUNB. for. <i>sinensis</i> KOEHNE.	야에노아카바 니와ザクラ	
앵도나무	<i>Prunus tomentosa</i> THUNB.	코스라우메	Korean Cherry (Nanking Cherry)
당옥매	<i>Prunus japonica</i> THUNB.		
이스라지(산앵도나무)	<i>Prunus japonica</i> var. <i>nakaii</i> (LEV.) REHDER.	초우센니와우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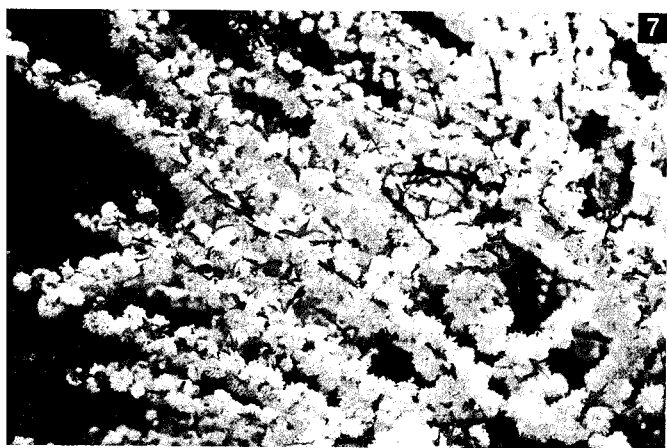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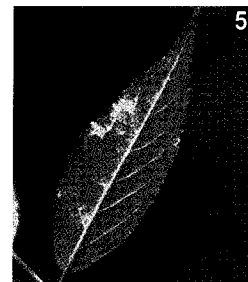
〈표2〉 수종별 생육특성

수종명	가지와 잎	꽃과 열매	분포지역	생육입지
산옥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고 1.5m정도 자라는 낙엽활엽수관목 · 가지는 총생하고 가지에 털이 없음 · 잎은 피침형, 예두, 예저이고, 가장자리에 파상(波狀)의 잔톱니가 있음 · 잎의 길이는 3~9cm, 잎자루의 길이 4~6mm, 뒷면 엽맥위에 털이 있는 때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꽃은 5월에 잎과 같이 연분홍색 홑꽃이 필 · 소화경(小花梗)의 길이는 1cm정도며 잔털이 있음 · 꽃잎은 타원형이고 암술과 자방에 털이 없으나, 간혹 있는 때도 있음 · 열매는 둥글며 지름이 1~1.2cm로 털이 없고 6월에 빨갈게 익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산지:중국 · 중국 중·북부 지역/한국, 일본에 분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햇볕이 잘드는 개방된 양지로 토양습도가 적당하고 비료분이 풍부한 사질양토
흰산옥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지와 잎의 특징은 산옥매와 같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흰꽃이 피는 것이 산옥매와 차이점이며, 기타 특징은 같음 	"	"
옥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지와 잎의 특징은 산옥매와 같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흰겹꽃이 피고 열매가 열지 않는 것이 산옥매와의 차이점임 	"	"
홍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지와 잎의 특징은 산옥매와 같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홍색 겹꽃이 피고 열매가 열지 않는 것이 산옥매와의 차이점임 	"	"
앵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고 3m정도 자라는 낙엽활엽수관목 · 가지는 많이 옆으로 퍼지고, 어린가지에는 융모가 밀생함 · 잎은 도란형, 급점첨두, 원저이고 가장자리에 잔톱니가 있음 · 잎의 길이 5~7cm, 넓이 3~4cm, 잎자루 길이 2~4mm 잎의 양면에 융모가 밀생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꽃은 4월에 잎과 같이 백색 또는 연한 분홍색으로 필 · 소화경은 2mm정도로 털이 밀생함 · 열매는 둥글고 지름이 1cm정도며, 잔털이 있고 6월에 빨갈게 익음 · 정선된 종자 1kg 당 2,000개 1kg당 3,100개, 발아율 20%정도임 	"	"
당옥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고 3m정도 자라는 낙엽활엽수관목임 · 잎은 난상타원형 또는 난상피침형이며 장점첨두, 둔저임 · 잎가장자리에 자잘한 겹톱니가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꽃은 4월에 자름 1.3cm정도되는 담홍색 홑꽃이 피며 꽃잎은 5개고 수술이 많음 · 화서는 총상화서로 많은꽃이 달림 · 열매는 핵과로 둥글고 크기가 1cm정도며 열매가 매끈하고 6월에 붉은색으로 익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산지:중국 	"



1 산옥매나무 꽃
 2 앵도나무 결실관경
 3 앵도나무 꽃
 4 6월의 열매
 5 잎 뒷면
 6 4월에 핀 당옥매 꽃
 7 옥매
 8 홍매

*아스라지는 별도의 정으로 기술함
 *본문 사진중에 1, 3의 사진은 수목관찰과 검색 (고경식)에서, 6의 사진은 나무쉽게 찾기(윤주복)에서 옮긴것임





수형이 잘 다듬어진 옥매

● 조경수로서의 활용가치

산옥매와 앵도나무 등은 꽃과 열매의 관상을 위한 정원수로 15~16세기경에 중국으로부터 도입되었으며 열매는 과일로도 널리 애용되어 왔다. 특히 겹꽃인 옥매는 꽃이 활짝 피면 눈이 내려 나무전체를 완전히 뒤덮고 있는 것 같은 착각을 일으킬 정도로 황홀한 은세계의 아름다움을 만끽할 수 있고, 홍매는 이른 봄에 삭막한 환경을 아름다운 연분홍색 꽃으로 화려하게 장식해주는 봄의 화신(花信)을 전해주는 전령사로 손색이 없는 화목으로서 정원수, 조경수로서의 활용가치는 재론의 여지가 없다. 과거에는 주로 각 가정의 정원에 정원수로 단목식재를 하여 왔지만, 앞으로 도로변·철로변·하천변·공원 등에 열식, 군식 등 집단으로 식재하고 전지·전정으로 수형을 잘 다듬어 주면 과거에 감상하지 못한 새로운 집단 조경미를 창출할 수 있어 조경수로서 활용성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 번식 및 양묘방법

산옥매와 앵도나무는 파종, 삽목, 분주, 휘묻이 등으로 번식이 가능하지만, 옥매와 홍매는 겹꽃으로 열매가 열리지 않기 때문에 파종번식은 불가능하다. 산옥매와 앵도나무의 종자 파종에 의한 실생묘양성은 7~8월에 빨갈게 익은 열매를 채취하여 3~5일간 물에 담가두었다 주물러

과육(果肉)을 분리시킨 후 물로 씻어 제거한 다음 건져서 물이 빠지고 나면 바로 습한 모래와 혼합하여 저온저장 또는 노천매장을 한다. 직파(直播)는 9월 하순에, 춘파(春播)는 이듬해 3월~4월에 파종한다. m^2 당 파종량은 750cc 또는 480g(약 1,500개), 파종방법은 산파(散播)이고 발아율은 약 20%이다. 발아시기는 5월 중·하순, m^2 당 발아기대본수 300본, m^2 당 득묘본수 200본, 평균묘고10cm, 상체(床替)는 봄에 m^2 당 30~40본이 되게 하고 1년간 거치(掘置)를 하여 두어도 무방하다.

삽목묘양성은 열매가 열지 않는 옥매와 홍매의 중요한 번식법으로, 삽수는 6월하순~7월초순경에 새로 자란 당년지(当年枝)에 전년지(前年枝)를 약간 붙여서 채취하여 15cm길이를 절단하되 밑부분은 예리한 칼로 비스듬하게 단칼에 절단하고 잎은 2/3정도 제거하여 준다. m^2 당 삽목본수는 200본 정도로 하고, 삽목장소는 해가림을 한 비닐하우스내가 좋고 노지삽목시에는 자동분부장치를 설치하여 공중습도와 토양습도를 잘 관리하여야 활착율을 높일 수 있다. 뿌리의 삽목은 가지 삽목과 달리 봄에 하는 것이 좋고, 휘묻이와 분주는 모수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묘목의 다량생산을 위해서는 적용하기가 어려운 방법이다. 